

돈 봉투 돌린 포천연천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拘束

유모씨 등 3명, 20여명에게 2만원씩 60여만원 돌려

포천시연천군 4.30 국회의원 재선거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한나라당 후보 공홍순거대책임위원장 유모(44세, 식당업)씨가 8일 검찰에 구속되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에 구속된 유모씨 등 3명은 지난 4월25일 오후2시30분경 포천시 신읍동 소재, 포천천 북계 주차장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 한나라당 정당대표의 지원 연설장에서 대학생들을 참석케 하면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청중으로 동원된 포천시 인근 대학

생 20여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검찰의 구속에 앞서 지난 4월25일 포천 장터에서 한나라당 정당 대표의 지원연설 당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 15명 정도가 연설회장으로 이동하여 연설도중 박수와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고 한나라당 후보측에서 동원된 것으로 판단,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개별 접촉을 통해 1인당 2만원씩 받고 동원된 것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결과 유모씨와 신모씨

에게 한나라당 대표 지원 연설장에 청중을 동원할 경우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관내 대학생 50명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부탁을 받은 신모씨는 관내에 거주하는 친구 21명을 모집해 동원시켰으며, 유모씨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이들에게 60만원을 살포한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은 지난 6일 피의자 4명을 긴급체포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한나라당 후보 공홍순거대책임위원장 유모씨와 유모씨의 운전기사, 중간 연락책 신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하부 모집책 조모씨는 불구속(판사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19명은 과태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돈 봉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지금까지 법원 판례를 보면 200~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졌다"며 "최근 들어 선거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돈 봉투사건의 경우 재판결과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승민 기자 forme65@paran.com

無許可 관광홍보 조형물 강행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 도로점용허가 못 받아 市, 추진 못하면 예산반납, 불법성 알면서 추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227-5번지 외 2필지에 설치된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이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돼 흠이 불법을 저행하고 예산까지 집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 설치사업이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돼 흠이 불법을 저행하고 예산까지 집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포천시의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산정호수 관광객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북면 문암리 227-5번지의 2필지에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 1식과 유도간판(1,000W짜리 직광 할로겐 투광기 4기 2개) 설치를 계획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높이 7m, 가로 4.5m 세로 1.7m의 3mm 스테인레스 조형물과 높이 2.5m 가로 0.6m의 유도간판 및 화강석(좌대) 설치를 위해 시예산 5천만

원과 민간자본(동베르 C.C.와 한화리조트 각 2천500만원) 5천만원 등 1억원을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포천시가 설치장소에 대한 관련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여 결국 불법시설물이 되어 준공식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1항2 규정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동 시행령 제118조1항3의 규정은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은 공작물축조신고를 득해야 한다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부서와 문서상 협의사항이나 협의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전주(완전소유)까지 이전하는 등 무리하게 추진한 흔적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포천시가 계획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4월 22일 영북면 개발자문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4월 30일 포천시 정책위원회 문화복지분과위원회 심의 ▶5월12일 대진대 등 관련학과 교수심 ▶5월19일 1차 서면심의 ▶7월5일 2차 서면심의 및 최종도안 선정 ▶8월16일 민간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협약서 체결 ▶9월1일 도로점용 및 준협의의 특 ▶9월5일 조형물 설치 계약 체결(수의계약) ▶10월15일 완공 등의 일정으로 추진됐다.

또한 설치장소에 대한 관련법 자체 검토결과에서도 ▶건축법 : 공작물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군사시설보호법 : 관할 군부대의 협의를 득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 공사로 인한 폐기물이 5톤이상 배출시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 2004년8월30일 포천시가 보낸 도로점용 협의요청에 대해 의정부 국토유지 건설사무소는 같은 해 10월5일 회신공문을 통해 "산정호수 안내간판설치를 위하여 우리 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바,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 및 유도간판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정한 점용범위를 초과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에 해당사항이 없어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포천시는 이같은 통보를 받고서도 무리하게 산정호수 관광홍보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관계자는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 "이번에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 설치사업을 못할 경우 예산반납을 해야하는 물론 예산회계상 동일한 사업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후 추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부 국토유지 건설사무소는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이 불법시설물로 판명이 날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최초 담당자가 관련법을 검토하고 불허가 처분했기 때문에 사후 추인을 할 것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승민 기자 forme65@paran.com

2006년 말 신읍동에 체육공원 들어선다

6천 4백 평부지에 72억 투입



포천시 신읍동 108-1번지에 들어설 포천체육공원 조감도.

도심지역 시민들의 체육·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포천체육공원'이 조성된다.

포천시는 신읍동 108-1번지 일원 6천 4백 평 부지에 72억 원을 들여 체육공원을 건립하며, 내년 말 공원완공을 목표로 토지보상 협의회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체육시설을 겸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컨셉 아래 조성되는 '포천체육공원'에는 ▶인라인스케이팅장, 게이트볼장, 다목적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은 물론 ▶분수와 계단을 이용한 작은 폭포와 ▶종합 놀이시설 ▶조깅코스를 겸한 산책

로 등이 들어선다. 또 공원 중앙에는 시 상징탑도 세워질 예정이다.

포천체육공원 부지는 그간 장기 미집행시설로 방치돼오며 토지 소유인의 민원을 야기해 왔으며, 청 소년 탈선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도시시설해제 또는 시설 집행 요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포천시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보상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포천체육공원은 주거 밀집 지역 내에 위치해 주민 이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육

교통약자 대상 지속적 안전교육 약속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목)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포천 왕방초등학교의 협조로 초등학생 1천여 명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왕방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등·하교를 할 때 보도 통행·횡단보도 건널 때·신호등 이용·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집에서 자전거, 인라인 놀이 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어린이들과 경찰관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으로 교통순찰차 및 싸이카를 함께 타 보는 경험을 했다.

최선을 다하여 경찰관 아저씨가 지속적으로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를 찾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약속하며,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른들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으로 사랑하는 아들·딸처럼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다고 선생님과 참석한 학부모들에게도 부탁을 잊지 않고, 끝으로 포천경찰서 경찰관은 "올해도 교통안전 정책을 더욱 강화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경찰서는 지난 4일 왕방초등학교에서 학생 1천여명을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포천중학교 ▶ 5면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포천상공회의소 방문 ▶ 6면
- 포천중·중고교 제7대 조성인 동문회장 취임 ▶ 13면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생산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풍산그라비아는 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 산 품 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오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뉴시용품 포장지류

용 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가 공 제 품
스탠딩상방, M자가공,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상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 팩 스 : (031) 536-3530 / H·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

포천반월산성배 테니스대회

테니스장 面부족으로 대회 축소 아쉬워



반월산성배 테니스회는 지난 1일 포천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 등 관내 5군데 테니스장에서 제9회 포천반월산성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포천 반월산성배 테니스회(회장 김광수)는 지난 1일 포천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전국 테니스 동호인 60팀 150여명이 참석한 제9회 포천반월산성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포천시의 테니스 동호인 지변확대

와 지역문화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금·은·동배부와 개나리부로 나뉘어 포천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향곡단, 천지테니스장, 한내테니스장, 대진대학교 테니스장에서 경기를 치렀다. 이번 대회의 경기방법은 2인1조

의 복식으로 8강까지는 5대5 타이브레이크, 노어드 시스템을 적용했고 순위는 다승, 승차승, 동률타점 득실, 연장자 순으로 결정했다.

대회장 김광수 회장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테니스장의 분산과 면의 부족으로 대회 포인트가 없고 올해는 선수단의 규모도 축소됐다"며 "현재 소홀함에 계획중인 테니스장이 하루 속히 건립돼, 포천에서 전국 규모의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배부 ▶ 우승 한상숙 · 한정백 ▶ 준우승 이진호 · 강승연 ▶ 공동 3위 박정현 · 박성준, 신동석 · 이상규 ▶ 은배부 ▶ 우승 고순성 · 이한석 ▶ 준우승 안형배 · 김남수 ▶ 공동 3위 김명호 · 박종해, 박홍룡 · 이충현 ▶ 동배부 ▶ 우승 박성근 · 황이규 ▶ 준우승 박광돌 · 황미진 ▶ 공동 3위 배봉수 · 정재섭, 허일수 · 김민수.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청단이후 첫 우승을 차지한 위너스 선수단이 결승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일동 · 위너스優勝

국민생활체육포천시축구연합회(회장 이상만)가 개최한 제12회 국민생활체육포천시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7일간의 열전을 마친 가운데 일동축구회와 위너스가 우승을 차지했다.

생활체육으로 축구를 활성화시키고 각 축구팀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대회는 지난 1일부터 개최식을 갖고 장년부 40대 20개팀과 청년부 30대(20대 2명 포함) 23개팀이 참가해 진행됐다.

조별리그 및 8강전 토너먼트로 진행된 이번 대회의 성적은 ▶ 장년부 ▶ 우승 위너스 ▶ 준우승 ▶ 한내 ▶ 공동 3위 이가FC · 소솔 ▶ 청년부 ▶ 우승 일동 ▶ 준우승 영북 ▶ 공동 3위 자작 · 일송 ▶ 최우수 심판상 명성 신재원 ▶ 최우수 득점상 한내 김재성(4골 · 장년부), 영북 손주영(4골 · 청년부) ▶ 최우수 선수 일동 위너스 안대식(장년부), 조진호(청년부)가 차지했다.

한편 청년부 우승팀인 일동은 영북과의 결승전에서 2대1로 역전승을 만들어 승리를 지켜냈고, 장년부 우승팀인 위너스는 전 · 반을 득점 없이 비기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 4대 2로 청단이후 첫 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11

포천시축구연합회

이상만 회장

전국최고의 축구조직 育成

국민생활체육포천시축구연합회(이하 축구연합회)는 포천시 축구팀 28개의 연합체로서 연합회를 중심으로 생활축구인들의 화합과 단결, 축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축구인들의 모임이다.

지난 2002년 회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축구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상만(49 · 사진) 회장으로 부터 포천축구연합회의 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이상만 회장
 포천시축구연합회

1972년 창립한 축구연합회는 창립 이후 세월이 말해줄듯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생활체육조직이다.

이 회장은 "현재의 축구연합회가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회원들 하나하나의 땀방울이 큰 역할을 했다"며 "축구연합회는 단일종목으로는 가장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축구연합회는 이 회장을 비롯해 고문 3명, 사무국 4명, 감사 3명, 운영 · 기술 · 심판 · 홍보 · 상설위원장 각 1명, 부회장 5명 등의 임원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팀 회장들은 이사로 등 록돼 있다.

이중 심판위원회는 현재 3급 이상의 심판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체 경기를 치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축구연합회는 28개의 팀이 공식 등록돼 있으며 1천300여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데, 5개의 지구로 나뉘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회장은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관내 28개 팀을 권역별로 묶어 놓았다"며 "팀을 권역별로 나눈 것은 축구연합회의 큰 테두리를 두고 각 지구별 대회개최 등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각 지구별 팀 현황은 1지구 포천, 반월, 자작, 한마음, 강호 2지구 한내, 위너스, 신북, 선단드레곤즈, 신포천 3지구 소솔, 우정, 원일, 일송, 갈월이스, 상운 4지구 가산, 일심, 군

내, 내촌FC, 영남, 화현 태를 5지구 일동, 이동, 영중, 영북, 명성, 운담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팀당 연간 60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다.

축구연합회는 연중 다수의 크고 작은 대회에 참가 상위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 회장은 "30, 40, 50대 선수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지난달 전국대회인 한마음리그에서 50대 선수들이

2위를 차지하는 등 대외적으로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 축구연합회는 연합회장기 대회와 연말결산대회를 축으로 봄과 가을 평균 일주일정도의 기간동안 경기를 치른다.

이 회장은 "춘계와 추계로 나뉘어 대회를 개최하는데 팀간의 실력을 겨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들 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올해의 계획에 대해 "임원진을 중심으로 한 아우회가 계획중이다"며 "회원 전체가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움이지만, 임원진의 단합을 통해 연합회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회원간의 단합은 최근 경기의 응원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각종 운동경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관중동원의 미비에 대해 이 회장은 "각 지구별로 자발적 응원에 나서기 때문에 대회마다 관중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팀간의 교류가 정착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했다.

축구연합회를 전국최고의 축구인들의 모임으로 만들고 싶다는 이 회장은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통해 연합회의 방향을 이끌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늘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로 축구연합회의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탐방 | 지역체육회 ① 화현면 체육회 회장 이수영

게이트볼장 확충 · 암벽등반교실 운영



이수영 회장
 화현면 체육회

민간의 교량역할을 하며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수영(46 · 사진) 회장으로 부터 지역체육회의 현황 및 발전상에 대해 들었다.

이수영 회장은 현재 운악산 자락에서 무지치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악산을 사랑하는 매니이로서 운악산 보호와

개발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

화현면 체육회는 이수영 회장은 비롯해 부회장 4명, 사무국장 1명, 회계 1명, 감사 및 이사 등 총 20여명 정도로 작은 조직을 갖고 있다.

이수영 회장은 "화현면 체육회의 조직이 작은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제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역 체육인구가 적기 때문이다"며 또한 "지역체육회 인원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소박하게 체육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직 확대는 중요치 않다"고 밝혔다.

화현면은 스포츠 인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화현면에 정착된 체육종목은 국궁, 축구, 골프정도 그 외의 종목은 존재하기는 하나 지역에 마땅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발달정도는 미약하다"며 "또한 인구가 워낙 작으니까 농업을 생계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화현면 체육종목 중 국궁은 화현면사무소 인근에 동부정기 위치해 30여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또 축구는 화현면축구회(태골)을 중심으로 5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화 · 목 · 일엔 화현초에서 운동하거나 야간 경기시 면사무소 앞 잔디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화현면은 화현초에 소규모지원 사업을 통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게 돼 지역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화현초에 6월이던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며 "이 시설은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설의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현재 화현초의 학생수가 50명이 늘어난 것을 보면 분명 지역의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화현면체육회는 화현면 발전기금으로 지원 받은 예산으로 알뜰한 실림살이를 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03년 인근 골프장에서 화현면발전기금으로 면에 지원한 금액 중

3천만 원을 지원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지역체육회의 규모가 크지 않아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츰 체육회의 역할과 주민건강을 위한 투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현면 체육회는 올해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구상하고 있다.

이 회장은 "관내 노인들이 남녀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이 없어 면사무소 앞 잔디구장을 게이트볼장과 축구장으로 겸해 사용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역체육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현면체육회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은 등산(암벽)교실의 운영이다.

이 회장은 "최근 의용소방대원 등 전문 등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들에게 암벽 훈련을 실시해 보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며 "현재 무지치나 신선대 코스를 개발해 암벽 훈련을 계획중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화현면체육회에서 지난 해 첫 번째 개최한 7인제 축구대회가 11월 예정으로 준비중이며 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타 종목의 발전을 도모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 이 함께 합니다

귀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영동 1호 세트
 100g × 36인분 3.6kg



☆영동 2호 세트
 100g × 24인분 2.4kg



< 생산 품목 >

- 영동국수 · 소면 ● 영동메밀 · 갈국수
- 곰표국수 · 소면 ● 곰표갈국수
- 정훈우동 · 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 · 칩 · 썩국수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 ·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代表
 文宰吉

